

5월의 한국영화

이성욱, 영화비평가, 씨네21기자

5월의 한국영화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대칭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혈의 누>와 <남극일기> 두 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영화적 개성이 커다란 축을 이룬다면 그 맞은편에서 출몰하고 있는 초저예산의 디지털 장편이 그 대칭 축을 이룬다. 상업영화 대작이 장르를 어떻게 비관습적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과 마치 댓구가 되는 것처럼 디지털 장편은 저예산이라는 구속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히 장르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만의 상상력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

장르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영화의 장르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평이다. 틀리지 않는다. 장르화의 의미를 산업적으로 따져보면 영화제작의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장르는 관객의 기대치와 만족도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공식화한 틀이자 내용이다. 20세기 전반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는 장르와 함께 성장했다. 장르는 자신의 존재증명을 깔끔하게 해냈지만 지금의 한국영화는 꼭 미국이 안착시킨 장르영화의 울타리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수요의 기호는 미세하게나마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장르의 공식을 미적분처럼 재조립하거나 두세 가지 장르를 짬뽕시키는 현상은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언제부터가 당연시되고 있다. 이제 장르는 몸통인 듯 양념인 듯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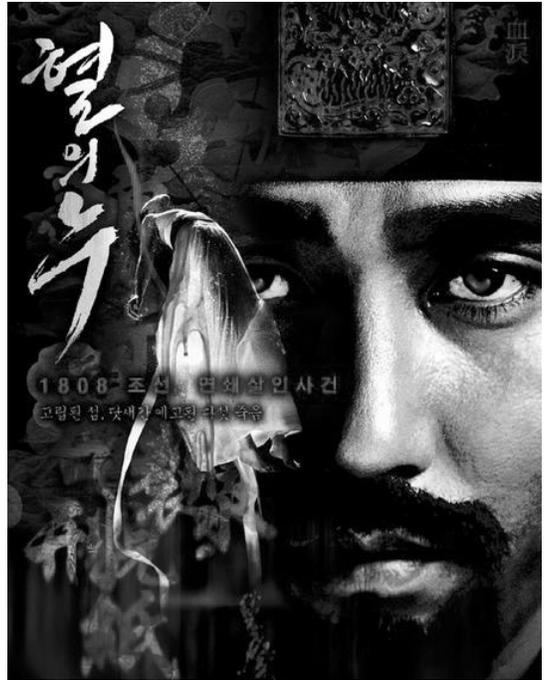
5월의 한국영화는 장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대칭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이즈음 평균 제작비의 두 배가 넘는 대작 <혈의 누>와 <남극일기> 두 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한국영화적 개성이 커다란 축을 이룬다면 그 맞은편에서 출몰하고 있는 초저예산의 디지털 장편이 그 대칭축을 이룬다. 상업영화 대작이 장르를 어떻게 비관습적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처절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과 마치 댓구가 되는 것처럼 디지털 장편은 저예산이라는 구속에 휘둘리지 않고 과감히 장르 속으로 뛰어들어 자기만의 상상력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

<혈의 누>와 <남극일기>는 공히 미스터리와 호러적 요소를 이야기 전개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와 호러의 긴장을 제공하는 원인제공자가 결국 인간에게 귀착된다는 걸 스펙터클하게 보여준다. 결국 영화의 주인은 인간 자신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주인은 스펙터클이고 인간은 그에 복무하는 부속품이 되기 일쑤인 할리우드 장르영화와 차별성을 띤다.

〈혈의 누〉가 취한 또 하나의 장르적 묘미는 시대극에 있다. 조선 말기 혼돈의 시기에 외딴섬 위로 공간을 제한해 놓고는 전근대와 근대의 미묘한 대립선까지 배치하고 있다. 근대적 인간형을 지향하는 이원규(차승원)가 전근대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섬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연쇄살인을 추적한다. 수사극이 〈혈의 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장르가 되는 것이다. 임금에게 바칠 제지를 실은 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불타버리자 이원규 일행이 사건을 규명하러 섬에 온다. 화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누군가 죽창에 꽂힌 채 죽어 가는가 하면 관리가 살아져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고, 유력했던 용의자가 얼굴에 젖은 종이를 뒤집어쓴 채 질식사해 죽는다.

사건의 발단은 7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이 섬에 제지소를 세워 부와 덕을 함께 쌓아가던 근대적 상인, 강승률 객주 가족의 무참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천주교인이던 권력자에게 재정 지원을 했다가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가족과 함께 몰살당한다. 섬으로 찾아온 토포사, 섬의 봉건 토착 지주, 섬의 경제적 잉여를 나눠먹고 살던 주민들이 갑자기 한 묶음이 되어 강객주의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형국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렇게 한 통속이 되었는지, 이들과 전혀 무관해 보이던 이원규 자신조차 어떤 사연으로 그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한 발을 딛고 있었는지 스펙터클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야기 전개와 긴장감의 에너지는 장르적 장치에서 나오나 그 에너지가 모여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의 끔찍한 자화상이다.

〈혈의 누〉가 외딴 섬이란 제한된 공간에서 걸은 멀쩡하나 속은 이미 미쳐버린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다면, 〈남극일기〉는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희디흰 눈과 얼음의 지평선과 6개월간 낮만 지속되는 밝은 태양 아래에서 미쳐 가는 인간의 모습을 포착한다. 바이러스조차 허용하지 않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살아 있는



장르영화 〈혈의 누〉와 〈남극일기〉 포스터

캐릭터로 설정했다는 점은 <남극일기>의 중요한 포인트다. 제한된 공간에서 그 공간과 맞서 싸우다 미쳐 가는 인간의 이야기는 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테마다.

<사이닝>에서 작가를 미치게 만드는 건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캐릭터였고, <백경>에서 선장을 미치게 만드는 건 바다라는 드넓은 공간이었으나 그건 눈에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이자 거무칙칙한 바다와의 대결이었다. <남극일기>의 '남극'은 그 공간의 캐릭터를 새롭게 확장하려는 야심 찬 도전이기도 하다.

<남극일기>는 도달불능점에 이르려는 6인 탐험대의 험난한 여정을 담은 탐험극이란 외피를 썼다. 여기에는 80여 년 전 먼저 비슷한 행로를 거쳤던 영국탐험대의 일기와 유해 등이 전하는 불길한 조짐과 실제 상황을 더해 미스터리 분위기를 한껏 세운다. 또 제3의 시선과 형체를 띤 호러적 기운까지 가세해 관객의 눈을 핏발서게 하려 애쓴다. 장르적 관습이라 할 만한 몇 가지 요소를 끌어들이며 말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남극에서 벌어지는 스펙터클의 기승전결이라기보다 인간의 끔찍한 자화상이다.

웬만한 상업영화 두 편은 제작하고 남은 거대한 예산으로 장르복합적인 대작을 만들면서도 스펙터클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수밖에 없다.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두서를 뒤바꿔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것이 성공할 때 한국 장르영화의 개성이 꽃필 것이라는 점에서.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장르에 대한 도전이 저예산의 디지털 장편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간과할 수 없다. 지난해 부산영화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마이 제너레이션> 등이 독립영화의 새로운 전망으로 등장한 디지털 장편의 가능

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5월 초 막을 내린 전주영화제는 장르에 뛰어든 디지털 장편의 심상치 않은 기운에 관객들까지 열광하는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2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7천만 원으로 완성한 무술영화 <거칠마루>가 개막 전부터 화제를 뿌리며 선두주자로 나섰다. <거칠마루>는 <서프라이즈>라는 기획 상업영화로 먼저 데뷔했던 김진성 감독이 비전문 배우들을 데리고 불과 2주 동안 찍어냈다. 여기에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 홍콩 무협물의 과장된 액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액션 배우가 아닌 현역 무술인들과 호흡을 맞췄다는 것. 물론 "무술영화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한지도 모른다"는 감독의 말처럼 <거칠마루>는 무술 그 자체에 승부를 걸지는 않았다.

"<거칠마루>는 '무술' 보다는 '무술인' 그리고 '무도'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그저 '강해지고 싶어서' 몸을 단련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찌면 시대착오적이다. 생활인으로서 약자이고 부적응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애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술을 놓지 못하는 열정이 잔잔하게 마음을 울리는 이 영화는 '무술영화의 탈을 쓴 휴먼드라마'라고 부르고 싶어진다."(박은영)

비전문 배우들의 무술영화는 충무로에선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으나 <거칠마루>는 후반작업과 보충촬영을 위한 추가제작비로 1억 3천만 원을 투자받아 8월 말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속편 제작의 가능성까지 따냈다.

장르영화에서 SF를 빼놓을 수 없다. 예컨대 분량의 절반을 넘는 CG와 3D애니메이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 세트까지 만들어 제작중인 <결전의 날이 왔다>는 독립단편영화계의 SF블록버스터라 할만하다. 특이한 건, 외계인의 지구침공을 다루는 이 단편 SF에 충무로에서 내로라하는 특수효과, 특수의상, 세트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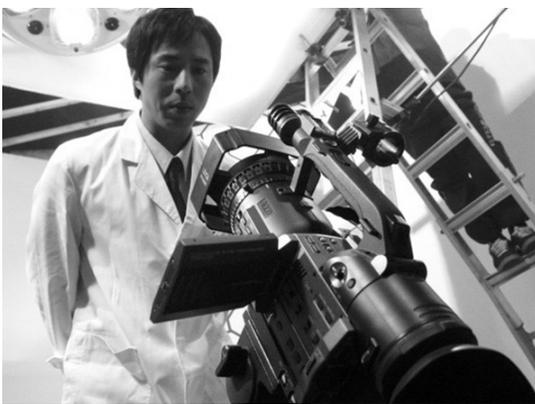
주류 영화계 안에서는 거대한 장르영화를 만들면서도 감독의 작가적 개성을 녹여내기 위해 숨막히는 승부수를 날리고, 독립영화계에선 자유분방하기 그지없는 상상력을 영화적 장치 안에 녹여내려고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

의 스태프들이 대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진 주류 안에서도 강력한 자장을 발휘하는 SF장르에 대한 매력과 흡인력의 증거다.

디지털 장편 <브레인 웨이브>는 불과 1천여 만 원으로 완성한 SF스릴러다. 여느 독립영화처럼 사비를 들였고, 개런티 없이도 참여한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작품이다. 총무로 현역 스태프들도 나서주었다. 신태라 감독은 피부로 느낀 현실의 음모론적 예감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

8년 전 서울역에서 “저는 실험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몸이 이상해졌고, 환청도 들립니다. 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진단을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진단을 준 남자는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다. 감독은 그가 실제로 모종의 사건을 겪었고, 어떤 거대한 권력에 휘둘렸는지도 모른다는 단상을 떠올렸다. 그 느낌을 영화화하는 데는 SF가 적절했다. 특수한 능력을 지녔지만 사회적으로 약한 소수자인 이들이 거대한 이익집단 혹은 권력에 희생당한다는 이야기.

<브레인 웨이브>는 거리의 화가 준오가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신의 비상한 초능력을 감지하게 되고 잃었던 기억을 더듬어 찾아나가면서 거대



디지털 장편영화 <브레인 웨이브>

한 음모와 마주하게 된다. 신태라 감독 역시 속편을 꿈꾸고 있다. “우수한 뇌파 조절 능력을 지닌 하이브레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을 실험하고 관리한 연구소도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속편은 제작 지원을 받아서 더 큰 규모로 만들어보고 싶다.”

전주영화제에선 또 호러 요소가 출몰하는 스릴러 <책을 읽거나 비둘기 모이주기>가 눈길을 끌었다. 제작비로 ‘무려’ 5백만 원을 들인 디지털 장편이다. 역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작품이다. “배우들은 모두 평소 술 마시면서 함께 놀던 사람들이다. 술 마시다가 이 사람들하고 영화 찍으면 되겠구나 싶어서 실제 인물을 모델로 시놉시스를 쓰고 몇 명을 덧붙였다.” 제작 여건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정강우 감독은 꿈에서 영화의 소재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제목만 떠올렸다.

<천사가 그녀와 섹스한 진짜 이유는> 폭설 때문에 길이 끊긴 산장에서 진행된다. 고등학교 동창 영미와 지혜는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현관에서 지혜의 죽은 애인과 똑같이 생긴 알몸의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를 방안에 들인다. 그 이상한 남자는 자신이 천사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옆방에는 이상한 남녀가 머물고 있고 지혜의 방에선 핏자국이 발견되면서 조금씩 무서운 괴담이 되어 간다. 스태프와 배우를 더해 단 열명이 이 영화에 동원된 인력의 전부이지만 이 영화는 “이상하게도 보는 내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매력을 갖고 있다.

주류 영화계 안에서는 거대한 장르영화를 만들면서도 감독의 작가적 개성을 녹여내기 위해 숨막히는 승부수를 날리고, 독립영화계에선 자유분방하기 그지없는 상상력을 영화적 장치 안에 녹여내려고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 거기서 쏟아진 영화들이 5월을 수놓았다. 🍄